

#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매출 7.4兆·영업익 1362억 '신기록'

## 1분기 실적 美 증권거래위 제출

국내 매출 74위... 이마트 추격  
커머스 부문 매출 전년비 15% ↑  
김범석 의장 "성장세 이제 시작"



김범석 쿠팡inc 의장

창립 13년차를 맞은 쿠팡이 분기 매출 7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원의 35%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쿠팡이 10일(한국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쿠팡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7조 3990억원(58억53만달러·분기 환율 1275.58원 기준)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다.

3분기 연속 영업흑자 성장세도 유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362억원(1억677만달러)로 지난해 영업손실 2478억원 대비 약 154.9%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037억원과 4분기 1133억원 영업흑자 기록을 견실히 이었다. 분기 영업이익 1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기 순이익은 1160억원(9085만달러)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2521억원이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실적 컨퍼런

스에서 "전체 유통시장보다 몇 배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활성고객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신사업에 수익 달리를 투자했음에도 전체 사업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 성과 내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나 쿠팡이츠,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수익이 아닌 제품 커머스 운영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고객 경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마진 개선을 달성했다"고도 덧붙였다.

커머스 부문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7조2176억원(56억 5834만달러), 조정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차감전영업이익)마진율



쿠팡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쿠팡은 1일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2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쿠팡은 주요 물류센터 건립이 완료 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3차 물류 서비스까지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

은 지난해 4분기와 같은 5.1%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0.1%에서 5%p 개선됐다. 분기당 최소 1회 이상 구매실적이 있는 활성고객은 1901만명으로, 전년 동기(1811만2000명) 대비 5% 늘었다. 1인당 고객 매출은 38만905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OTT서비스 쿠팡플레이와 배달 앱 쿠팡이츠, 해외사업, 핀테크 등 신사업 손실 규모도 축소돼 조정 EBITDA 손실은 605억원(4745만 달러)을 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은 것

이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을 자신했다. 그는 "로켓그로스를 통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났고, 앞으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로켓배송 선택지가 대대적으로 확대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사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쳤다.

쿠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누적적자가 약 6조원에 달했다. 2015년 김 의장이 '계획된 적자'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물류 투자 계획을 발표할 후 매년 적자

가 확대되자 유통가에서는 흑자 가능성을 낮게 점치기도 했다. 물류센터 확대를 위한 과도한 투자와 배송 역량 재고를 위한 인력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자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당시 김 의장은 "2022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EBITDA 7~1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4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1분기 앞당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쿠팡은 연간 영업손실 1447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1조7907억원 대비 92% 손실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국딜로이트그룹이 지난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국내 매출 상위 250대 기업 중 74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유통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한 이마트(전체 60위)와 근소한 수준까지 따라잡아 1위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 나홀로 통화완화... 위안화 가치 '뚝뚝'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경기회복 우려, 지정학적 갈등 겹쳐  
8일 기준 달러화 대비 0.23% 하락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홀로 통화완화를 택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갈등까지 부담이 됐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위안화는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지난 8일 기준 0.23% 하락했다. 연초만 해도 달러화 대비 강세가 가팔랐지만 이후 이어진 약세 흐름에 연간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멈출 것이라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인덱스가 4.9% 하락했지만 위안화의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폭은 0.7%에 불과했다.

중국의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지수도 올해 초 100.30에서 지난 5일 기

준 99.27로 하락했다. 위안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통화정책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유동성 공급을 선택하면서 내외 금리차는 벌어졌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매력도 그만큼 떨어졌다.

여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회복과 다시 불거진 미·중 갈등 역시 위안화를 끌어내렸다.

국제금융센터 김진경 책임연구원은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호조를 보였지만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경기회복이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경상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경기회복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경제지표가 더욱 개선되어야 위안화

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이 대(對)중 제재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중국 투자에 걸림돌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중 투자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도 당분간 위안화 약세를 점치는 곳들이 늘고 있다.

JP모건과 노무라, HSBC, 씨티 등은 미중 갈등과 제조업 경기 및 수출 둔화 가능성을 이유로 달러·위안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김 연구원은 "아시아 역내 통화들은 위안화에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만큼 위안화 환율 흐름에 따른 파급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기회복이 서비스 부문 등 내수에 집중되면서 그 영향이 아시아 전반으로 파급되지 못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대출 연체율 '썰렁'... 금융권, 긴장감 고조

## >> 1면 '尹정부 1년과 금융...'서 계속

문제는 금융지원에 의한 착시현상이 지속되면서 잠재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1014조 2000억원)에 이어 1000조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8.9% 늘어났다. 또한 연체율도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 포인트(p) 증가했다.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부실

뇌관이 곧 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에서는 연장만 5차례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은 금융시장 불안감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지원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도 않고 금융권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 결국 모든 피해는 금융권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제조사	대상	결함장치	대수
기아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190,841
메르세데스-벤츠	E 220D 등 8종	고압연료펌프	20,547
현대차	파비스·엑시언트	배터리 스위치	16,099
	뉴 카운티·카운티	좌석안전띠 리트랙터	65
한국지엠	볼트 EV·볼트 EUV	고전압 배터리	1,467
스텔란티스	DS4 Crossback 1.5 BlueHDi FCYHZ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	33

\*제작일자에 따라 모델 상이

/국토교통부

# 국토부, 완성차 5개사 22.9만대 리콜

## 각사별로 무상수리 실시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GM,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종, 22만 9052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들 차량의 제작결함에 대해 9일부터 각사별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의 경우 카니발 19만841대(판매 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오는 17일부터 기아직영 서비스센터와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20d, C220d 등 8개 차종 2만 547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품의 강건성(공정상 문제가 생겨도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능력) 부족에 따른 마모로 오는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트럭 파비스 등 2개 차종 1만6099대(판매 이전 포함)는 배터리 스위치 설계 오류로 스위

치와 스위치 고정 구조물 사이에 이물질이 쌓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뉴 카운티 어린이이송장치 등 2개 차종 65대는 어린이 좌석안전띠 리트랙터(탑승자 몸매에 맞게 좌석 안전띠를 조절하는 장치) 부품 조립에 불량이 있어 리콜 후 추후 과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뉴 카운티 어린이이송장치 등 2개 차종은 11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전기차) 등 2개 차종 1467대(판매 이전 포함)는 고전압 배터리 결함(금속 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으로 무상 수리는 이날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DS4 크로스백 1.5 블루HDi FCYHZ 33대(판매 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의 체결이 누락, 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